

정보시스템 감리 小考



이 옹

사례 1: 개발공정상에 일정이 절반이나 진척된 외주 개발용역 프로젝트에 대하여 개발의뢰인(발주자)과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중간감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개발담당 프로젝트 매니저로 부터 전화가 왔다.

“감리시에 개발자가 준비해야 되는 산출물들은 무엇 무엇입니까?”

개발방법론의 적용이나 표준화등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듯한 물음이었다. 또한 그는 발주자가 개발도중에 외부감리를 의뢰하리라

약력 : • 78~73 한국전기계산(주)/ 78~98 한국증권전산(주) • 98~현재 (주)연합정보기술 대표컨설턴트

곤 예상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지금까지 체계적인 단계별 산출물은 거의 작성치 않고 있었으며, 테스트가 어느정도 종료된후 시간여유가 있을 때에 사용자가 필요한 산출물들을 작성하려고 예정하고 있었노라고 하였다.

경험에 의하면 테스트이후에 작성하려고 미루던 산출물들은 그때 쯤 되면 이런저런 사유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러다가 시간적 여유가 없다보니 적당히 구색만 갖춘 도큐먼트들만 남게되기 마련이다. 그러곤 운영단계에서 이로인해 개발비의 몇배나 더 투자하게 되는 후유증은 고스란히 운영자의 몫이되고 만다.

이번사례의 경우 감리의 대상이되는 산출물들은 개발자의 개발에 필요한 또는 사용자의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도큐먼트가 아닌, 감리를 위해 작성되는 산출물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감리일정에 맞춰 급박하게 만들어져야만 했고 그 부실한 내용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또한 소급하여 작성되는 일련의 작업들은 투입된 개발자들을 얼마나 짜증스럽게 만들었을 것이며 또한 그들은 애꿎은 감리인들을 얼마나 원망했을 것인지는 명약관화한 일이었다.

그 프로젝트의 중간감리결과는 발주자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하였고, 허술하게 개발되던 내용과 급박하게 만들어졌던 산출물들을 다시 정리하는데에는 이중삼중의 시간과 인력의 소모가 필요할 수 밖에 없었다.

사례 2 : 독립된 품질보증팀에 의해서 사용자의 품질요건을 철저히 정의해 놓고, 품질목표와 품질계획을 수립하여 정해진 품질활동을 수행하며 검증 및 통제를 교과서대로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감리였다.

일정, 범위, 인력, 변경, 위험관리 등의 프로젝트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되고 있음은 물론 단계별로 작성되는 산출물들도 빠짐없이 잘 만들어져 있었다.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형태에 비추어 볼 때, 그곳 품질보증팀에 의한 활동은 유난히 철저하여 감리활동의 주요한 부분을 거의 카바할 뿐만 아니라 개발자측의 자체 감리팀에 의한 내부감리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외부 감리인으로서 어느정도의 감리성과(?)를 올릴수 있을까하는 걱정마저 갖게 할 정도이었다.

감리의 결과는 부분적으로 사소한 사항이외에 크게 문제된 만한 것이 없었다. 이런 경우 발주자는 물론 개발자는 감리 때문에 추가로 신경써야 할 일이 별로 없이 과업을 진행할 수 있고, 개발비에 대한 중간정산에 대해서도 피차 몇몇이 정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앞의 두 사례는 매우 대조적인 경우에 속하지만, 개발과정중에 감리를 하기로 계획된 프로젝트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볼때 애당초 부터 개발담당자의 마음자세와 진행과정상에 크게 차이가 남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정보시스템 개발감리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중요한 사항은 개발방법론이 프로젝트초기에 정의되어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므로써 개발활동과 일정, 단계별 산출물등이 방법론에 정의된 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감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개발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자칭 정보기술자들이 적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모로감’으로써 시스템의 개발과정중이나 이후에 보이지 않는 얼마나 많은 리조스들이 낭비되며 결국엔 운영담당자가 얼마나 애를 먹는 일인가는 정보시스템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가 다경험해본 불문가지의 일인 것이다.

1987년부터 한국전산원이 행정전산망사업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국가나 국영기업체등의 중요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므로써 정보시스템 감리에 대한 인식이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

특히 SI업체들이 관리기법/1, 자체의 개발방법론 또는 기타 방법론등을 적용하여 정형화된 개발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이제는 보편화된 단계에 이르렀고, 또한 국가기관 국영기업체등의 신규개발 프로젝트들은 거의 감리를 이행하므로써 이분야의 정보시스템 품질을 한단계 높인 일은 한국전산원의 공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겠다.

정보시스템 감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감리를 하겠다고 시도하는 인력도 집중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있는 기술자들도 많이 배출되고 있다.

건축, 토목, 전기등의 기술분야는 오래전부터 감리가 정착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정보통신설비분야에 98년 7월 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해서는 감리를 하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시행되었다.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선도 역할을 정보시스템분야에서 담당하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바, 우리나라 정보시스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나 국영기업체뿐만 아니라 금융, 항공등 공공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보시스템의 감리를 하도록 하루속히 감리를 하도록 하루속히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